

보도자료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리드 (Kosdaq 299660)
문 의 처 : IR/재무팀장 김민수 (02-3285-7860)
E - mail : mskim@cellid.co.kr
참 조 : 이 자료는 2021 년 05 월 26 일 오전 10 시 30 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드, LG 화학과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이전 계약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 글로벌 라이선스-아웃 계약, 선금금 및 단계별 마일스톤 최대 1,835 억원 규모

항암면역치료백신 및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문기업 셀리드(대표이사 강창율)는 26일 LG화학과 CeliVax원천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항암면역치료백신은 예방이 아닌 치료 목적의 항암제로 종양 특이적 항원에 대한 인체 면역기능을 활성화시켜 암을 치료하는 백신이다.

이번 계약은 Neo-antigen(신생항원) 유래 암 항원을 탑재하는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에 대한 전 세계 독점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LG화학에 이전하는 것으로, 셀리드는 LG화학으로부터 10억원의 계약금을 선 수취하고, 추후 개발 단계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1,825억원의 마일스톤을 지급받게 된다. 상업화 성공에 따른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받는다

LG화학은 자체개발 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항암 파이프라인 확대에 집중해왔으며, 이번 계약으로 자체개발 항암 세포치료제 기반 기술과 셀리드의 CeliVax 원천기술을 융합한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셀리드가 보유한 CeliVax 항암면역치료백신(Cancer Therapeutic Vaccine) 기반 기술은 면역항암의약품 중 하나인 세포 기반 항암면역치료백신 기술이다. 환자에서 유래한 자가 B세포 및 단구를 항원제시세포로 이용하는 유전자 도입 세포치료제로 암항원과 면역증강제(α -galactosyl ceramide, α -GC)를 함유해 다양한 항암면역작용을 강력히 유도하고 1일 제조공정의 신속성을 특징점으로 한다.

셀리드 강창울 대표이사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오랜 전통과 굴지의 역량을 보유한 LG화학과 함께 자사 CeliVax 원천기술을 융합한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양한 암종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치료제를 제공함으로써 고통받는 환자와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화학 홍성원 신약연구센터장은 “면역항암 파이프라인 강화 및 다각화를 통해 전세계 암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개인 맞춤형 항암면역치료백신 개발에 속도를 높ی겠다”고 말했다.